

등 부상 회복한 김광현, 시물레이션 2이닝 소화



김광현

등 통증을 털어낸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과 KSDK 등 미국 매체들은 23일(한국시간) “김광현이 시물레이션 계입에 등판해 2이닝을 소화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김광현의 투구에 대해 “체인지업이 정말 좋았고, 슬라이더와 직구의 움직임도 좋았다”며 “기복이 있었지만 날카로운 투구를 했다”고 호평했다.

메이저리그에서 2번째 시즌을 준비하는 김광현은 14일 시범경기 3번째 등판을 앞두고 등 통증을 호소하며 훈련을 중단했다. 다행히 이를 만인 16일 투구훈련에 복귀해 캐치볼을 진행했고, 19일과 21일 2차례에 걸쳐 불펜피칭까지 소화하며 몸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알렸다.

다음 단계는 실전 등판이다. 실트 감독은 “김광현이 정상적으로 회복한다면 이번 주 시범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후 김광현이 개막 선발로테이션에 합류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은 올해 2차례 시범경기에서 3이닝 8실점(7자책점)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한결 나아진 모습을 보여야 4월 2일 개막하는 정규시즌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기에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프로야구 대표이사들이 말하는 역할론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지향하는 목표는 한결 같다. 팬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각 구단 대표이사들의 역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현장과 프런트의 조화에도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악단 마에스트로” “하나로 묶는 코디네이터”

〈이석환 롯데 대표〉

〈박찬혁 한화 대표〉

선수단과 프런트 역할 명확한 선긋기
SSG 민경삼·두산 전풍 “책임지는 자리”
LG 이규홍 “최상 인프라, 최고 경기력”



창간13주년

야구단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 2~3년 머물고 떠나는 자리.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야구단 대표이사

를 향한 인식은 딱 이 정도였다. 관심은 ‘불통의 개입’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은 다르다. 모기업 오너십의 핵심 인재들이 야구단을 이끄는 풍경이 결코 낯설지 않다. 야구단을 대중에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표이사의 선택은 개입이 아닌 명확한 방향 설정이다.

최근 KBO리그에선 현장과 프런트의 역할 설정을 두고 갈등의 목소리가 잦

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3주년을 맞아 각 구단 대표이사들에게 본인들의 역할 설정, 그리고 혹시 모를 갈등에 대처하는 매뉴얼에 대해 물었다.

●마에스트로·코디네이터·섬기는 리더

대외적으로는 KBO리그 소속구단의 대표이사로 역할이 같다. 하지만 구단 내부업무의 범위는 천차만별일 터. 각자의 역할에 대한 정의를 부탁했다. 이석환 롯데 대표는 ‘마에스트로’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는 하나의 악단을 구성하는 각각의 여러 악기들이 그 개성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화음을 내도록 조절한다. 개성을 존중하며 동시에 하나의 팀을 향해 가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찬혁 한화 대표는 ‘코디네이팅’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상호 이질적인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하나의 실로 꿰어 내는, 코디네이팅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흥 키움 대표는 ‘투명함’을 강조했다. 허 대표는 “야구단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효율적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경삼 SSG 대표는 ‘책임지는 자리’로 정의했다. 민 대표는 “각 파트 구성원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동기와 권한부여(empowerment)가 대표의 역할이다. 그에 따른 결과는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풍 두산 대표 역시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무한한 자리”라며 오히려 “현장의 감독과 프런트의 단장을 보좌하는 역

할”로 자신의 직책을 정의했다.

●선원의 갈등, 선장의 역할 설정

프런트와 현장은 한 배를 탄 선원인 동시에 두 명의 키잡이다. 그들의 의견이 엇갈릴 때는 선장의 결정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대표이사들이 ‘선수단은 선수단’, ‘프런트는 프런트’라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서로 합의된 지점에서 힘은 합치되, 일정 수준 이상을 넘는다면 개입이라는 의미다.

원기찬 삼성 대표는 “야구단 대표이사가 종목 자체를 잘 알고 취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나 역시 그렇다. 경기는 덕아웃 멤버들이 잘하면 된다. 구단 실무는 단장을 필두로 한 프런트가 담당한다”며 “대표이사는 야구단 전체가 나아갈 기본 방향을 잘 설정해주는 역할”이라고 정의했다. 박찬혁 한화 대표는 대표이사의 선수단 내부 개입을 철저히 경계했다. 박 대표는 “선수 출신 단장이 많았다. 선수단 전력과 운영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맡기는 추세”라며 “그 과정에서 대표가 내부 전문 영역에 개인적 식견으로 개입하는 건 위험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규홍 LG 대표는 야구단 너머 리그 전체 산업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내부적으로는 선수단이 최상의 인프라 속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도록 고민하는 자리다. 궁극적으로는 KBO 이사회 일원으로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환 롯데 대표 역시 “한국야구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최익태 기자 ing17@donga.com



◀ ‘10개 구단 대표들이 말하는 ‘팬 퍼스트’ 1면에서 이어집니다

LG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가족, 어린이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화원 KIA 대표는 “우리를 사랑하는 강력한 팬들이 최고의 강점인데, 이걸 하나로 연결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KIA의 키워드는 ‘사람냄새’다. 이적선수 송별희, 은퇴선수 환송식 등 팬과 선수를 존중하는 문화가 이 대표의 목표다.

●야구가 ‘그깟 공놀이’ 이상이 되기까지

야구를 통한 사회가치 실현을 꿈꾸는 팀도 있다. 황순현 NC 대표는 “야구 자체가 목적인 구단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갈 꿈과 용기를 얻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경삼 SSG 대표는 “스포츠와 문화 발전을 통해 전국민이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스포츠와 비즈니스가 결합된 신문화 조성은 와이번스를 인수한 랜더스가 지향하는 선명한 방향성이다. 민 대표는 “모기업(신세계그룹)이 고객경험에 대한 차별화

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B2C기업이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고객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매점은 물론 FNB(식음료) 등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찬혁 한화 대표는 “야구를 통해 활기찬 일상의 행복을 전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 정직한 노력과 공정한 경쟁의 대가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지난해 최하위지만 올 시즌 패배의식 개선의 기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구단은 이를 효율적으로 팬들에게 알리기 위해 OT T 플랫폼 ‘왓차’와 손잡고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모기업이 없는 키움에 야구는 곧 생존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적 이상의 가치에 사활을 건다. 허흥 키움 대표는 “우리 구단은 야구전문기업이다. 모기업이 없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완벽한 성과 달성을 목표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